인물탐방 문현3동 최철훈 시인

"한국문단 새바람 일으킬 것"

종합문예지 계간 〈文章21〉 발행
창작교실 열고 문학의 열린공간 마련

최철훈 시인이 자신의 서재에서 '문장21' 발행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남구 문현1동 큰사랑길 61호. 17㎡가량의 차고를 개조한 사무실에 계간 <文章21> 편집부가 있다. <文章21>은 남구에서 창간된 종합문예지로써 지난해 4월 등록을 마치고 2008년 7월 여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제5호가 발행됐다.

<文章21>은 전국 작가를 대상으로 시, 소설, 수필, 평론, 아동문학까지 다양한 영역을 다루며 기성 작가들의 작품발표는 물론 신인 작가들의 데뷔 무대로도 활용되고 있다.

남구문인협회 소속의 최철훈 시인이 발행과 편집을 맡고 있으며 김종 시인이 주간을 맡았다. <월간문학>으로 등단하고 제3회 한국해양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최 발행인은 "원고료가 없으니 좋은 글을 청탁받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문학이 내 삶이고 좋아하는 일이니 문제없다"며 호탕한 웃음으로 열정을 보인다. 아울러 "계간 <文章21>은 문학의 열린 공간이다. 문단의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겠다. 질적인 면을 향상시켜 다양한 필자에게 고루 지면을 분배하겠다"고 말한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청소년 문학지가 없는 부산에 '청소년 문학지'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발행 당시 소외계층 문인들을 배려하는 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지향점을 가졌다. 창간 권두언에서 쓴 '다시는 아픈 기억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자작시가 그의 생각을 대변해 주고 있다. 40년 전 구걸하던 두 아이의 어미를 도와주지 못했던 죄책감이 오늘날까지 그의 마음을 짓눌러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700여 명의 장애인을 보호하는 천주교 재단 광고를 무료로 싣기도 했으며, <文章21> 제3호에서는 대구의 맹인 수필가 김진섭 씨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점이 있어 아쉽지만 근본 취지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다.

현재 <文章21>은 문예창작 교실도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실기위주의 수강이 가능하다. 최 발행인은 기성 작가들을 능가하는 문장력과 실력을 갖춘 신인이 많다며 장르 구분 없이 실력 위주의 신인들을 과감히 배출할 생각이다.

편집실을 둘러보니 문예지 창간호를 비롯한 고서가 책장에 빼곡하다. 인상 깊은 것은 60여 권의 문단사 스크랩북과 황금찬 시인 등의 원로 작가가 보낸 육필원고 등이다.

남구의 첫 문예지창간에 돛을 올린 <文章21>이 21세기의 한국문단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文章21」 편집부－☎ 646-0009

김정화 기자

■ 화제의 인물 －부산 최초 소믈리에 대회 입상한 대연3동 이승훈씨

와인의 매력에 취해 보세요!

부산에서 처음으로 국내 최고권위의 소믈리에(와인전문가)대회에서 입상한 소믈리에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남구 대연동에서 와인바 'VINAfo'를 운영하는 이승훈(32)씨다.

이씨는 지난 7월 프랑스 농식품진흥공사가 주관하고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회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서 장려상으로 입상했다. 이는 부산에서는 처음이자 유일하다.

동아대 국제관광통상학부를 졸업한 이씨는 2003년 무렵 외식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던 중에 와인을 접하게 됐다고 한다. 원래 이씨는 술이라곤 한 잔도 못했는데 와인을 접하고 나서 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는 와인에 대한 자료가 많지 않아 혼자서 공부하다가 2006년 안락동에 위치한 부산와인스쿨에 등록해 소믈리에 과정을 마쳤다. 이후 2007년에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와인전문가과정투어에 참가해 프랑스 현지의 와인박람회와 와인산지로 유명한 보르도와 부르고뉴 지방을 다녀왔다.

이씨는 현지에서 그곳의 토양, 기후 등이 와인의 맛과 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닫고 와인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됐다고 한다.

2008년에는 프랑스 론(Rhone) 지방에 있는 'UNIVERSITE DU VIN'에서 와인전문가과정을 수료했다.

이씨는 와인이란 "일상의 새로운 기쁨이며 사람과 사람을 교감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와인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자 "우선 비싼 와인이 좋은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와인을 고를 때 그날의 식사메뉴에 맞는 와인을 고르는 것이 기본이며 잘 모를 때는 마트나 와인가게의 점원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속적으로 부산에 와인문화를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한다.

현재 매 짝수달마다 부산의 소믈리에 20여명과 함께 시음회를 개최하고 있고 부산와인스쿨 강사로서 와인문화보급과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가까이는 '한국 소믈리에 대회' 입상자 자격으로 다시 한번 프랑스 와인산지를 방문해 연수를 받게 된다. 11월에는 '부산국제주류박람회'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와인의 매력을 접하게 할 계획이다.

김재우 인턴기자

남구지역자활센터를 아세요?

집수리·세차사업 등 운영
소외계층 자활·자립 도와

남구지역자활센터(관장 최문섭)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기능교육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자활의욕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단체다.

지난 2000년 10월 문을 연 센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18~64세까지의 비취업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주민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143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집수리를 유료로 진행하고 있는 집수리 사업단과 학교청소 및 입주청소 등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사업단, 타업체와 비교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스팀세차 사업단, 산모 도우미와 아이돌보미 파견을 하고 있는 산모베이비시터 사업단 등에 소속돼 자활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여기서 얻어진 수익금은 자활기금으로 적립돼 지역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

센터는 사업 참여자들의 사기 진작과 교양을 높이기 위해 영화관 등을 찾는 여가활동도 갖고 있다. 올해는 지난 20일 경주로 문화체험행사를 다녀왔다.

최문섭 관장은 "센터는 경제적으로 힘든 소외계층의 탈수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업 참여자 스스로가 주인이 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아이템을 손수 개발하는 등 삶의 의미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 636-7212~3 조상영 기자

근로자들이 집수리 사업을 통해 자활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 이런 모임 어때요－한국부인회 남구지회

환경살피고 어려운 이웃 돌봐

한국부인회 남구지회 회원들이 이기대 해안가 환경정화 운동을 펼치고 있다.

40~60대 주부 30여명으로 구성
환경대학 개설 소비자상담실 운영

지난 6일 한국부인회 남구지회(회장 김나연)는 이기대 해안 일대에서 환경정화 운동을 펼쳤다. 이날 환경정화에는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부인회 남구지회는 지난 2006년 10월 발족했으며 40~60대의 주부들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단체는 봄·가을에 걸쳐 이기대 공원, 황령산 등 남구 일대에서 다양한 환경정화 운동을 해 왔다. 지난 4월에는 부산시민의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부산환경대학'을 개강했다. 이는 환경정화운동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여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 개설했다.

이 밖에도 홀로어르신돕기 일일찻집, 불우이웃돕기 사랑의 바자회 등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단체는 지역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상담실(☎ 462-1473)도 운영하고 있다.

남구지회 김나연 회장은 "한국부인회가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로서 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살피고 환경캠페인과 소외계층을 돕는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큰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남구청 직원 3인 석사학위 취득

최영자

김학진

최혜영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남구청 직원들이 있다.

최영자 주민복지과장과 김학진 도시관리과장, 최혜영씨 등 직원 3명은 최근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나란히 취득했다. 이들은 모두 낮에는 일터에서 자신의 맡은 바 일을 하고 일과 후에는 부산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석사학위를 받은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한 학위를 취득한 만큼 앞으로 선진행정 구현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구 사람들

문화사업 적극 지원할 터

오륙도무용단 김영섭 후원회장

김영섭 자유총연맹 남구지회장이 최근 오륙도무용단의 영원한 서포터를 약속하며 후원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은 "우리춤 연구와 보급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오륙도무용단의 발전이 곧 남구문화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전통문화 계승과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무용단을 적극 후원하는 데 노력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회장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기업인을 대상으로 소수 정예의 후원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조만간 단원과 회원간의 만남을 통해 화합의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후원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그의 뜻이다.

또한 올해 예정돼 있는 오륙도 축제 공연 등에 단원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창단 5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큰무대를 마련해 주민들에게 무용단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계획을 갖고 있다.

김영섭 회장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부터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장과 남구문화원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륙도 무용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 수업내용 : 민요춤, 장고춤, 산조춤, 소고춤, 지전춤
▶ 강의시작 : 9월초부터

시간	월요일	수요일
15시~16시30분	소고춤, 산조춤	지전춤, 민요춤, 장구춤
17시	(특별반 모집) 살풀이춤 및 전통춤의 기본법	

▶ 문의 : 오륙도무용단 회장 조복희(☎ 018-470-3424)

'고객만족' 면허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조활 남부운전면허시험장장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전 직원은 고객인 국민에게 친절·신속·공정한 자세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사랑받는 면허시험장이 되도록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조활 남부면허시험장장<사진>은 최근 면허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했다.

그는 "남부면허시험장 전직원은 모든 민원인을 '고객'으로 모시는데 있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도로교통안전의 산실'이라는 기본사명을 다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시험장장은 또 "시험장을 방문했을 때 잘못된 부분을 밝혀주면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통보해 시정하겠다"며 "특히 행정착오나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2번 이상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업무 처리 후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험장이 제정한 서비스 헌장에는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면허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 모두를 가족처럼 대한다 ▲엄정한 시험 관리로 우수한 운전자를 배출해 도로교통안전에 기여한다 ▲모든 고객에게 친근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불편·불만족 사항은 즉시 바로잡고 적절한 보상을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옥련기자

남구문화원 신임 이사 선임

남구문화원(원장 성재영)은 지난달 22일 제6차 이사회를 열고 나용승 그랜드자연요양병원장 등 8명을 새로운 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문화원 운영의 중심역할을 맞고 있는 이사진은 모두 31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신임이사 명단

성 명	직 위
나용승	그랜드자연요양병원장
김달현	남구문인회 회장
고영근	부산외대 중국지역통상학과 교수
임장근	부산시청소년진흥센터 소장
최원철	부산시인협회 수석부회장
윤형곤	가나병원장
김옥련	오륙도여성합창단 단장
박동만	(주)토성토건 대표

반려동물 유기 단속 합니다

반려동물 유기가 급증하고 있어 유기동물 특별 단속 시행합니다.

▣ 단속대상 : 관내 발생하는 전 유기동물(무단유기, 허위유기 신고 등)
▣ 단속기간 : 9. 1.~9. 30.(30일간)
▣ 단속방법 : 유기동물 신고접수 후 현장 확인 후 처리
▣ 적 발 시 : 과태료 50만원 부과
▣ 문 의 처 : 남구청 지역경제과 (☎ 607-4482)

장애인 대상 무료 치과진료 봉사

남구장애인복지관서 사랑실천
좋은강안병원 장원석 치과과장

지난 6월 20일 남구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치과질환을 가진 남구 거주 장애인을 위한 무료치과진료를 시작했다. 이로써 남구 장애인들의 구강건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무료진료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이들을 돕기 위해 헌신한 숨은 주인공들 덕분이다.

좋은강안병원 장원석 치과과장과 동료의사 김초롱, 조혜정 선생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복지관 직원과 경남정보대 치위생사,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사랑의 현장에 동참했다.

장원석 과장은 이전에도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진료를 꾸준히 실천해왔다. 좋은강안병원에 부임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 장애인들을 위한 무료진료를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의사들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어 힘이 된다고 한다.

치과진료는 매월 첫째 토요일을 제외한 토요일 오후 2시~5시까지다. 지금까지 40명이 넘는 장애인을 치료 상담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많은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장원석 과장은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일이 보람 있다. 같이 봉사하는 동료의사들에게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무료진료를 통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정순 기자

좋은강안병원 장원석 치과과장과 동료의사 조혜정씨가 무료진료봉사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부부애로 불황파고 넘는다

20여년간 미용실 함께 운영
부부 미용사 오재영·정명자

20여년을 넘게 미용사로 같이 활동하며 알콩달콩 살고 있는 부부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오재영·정명자 부부는 감만1동 현대2차아파트 '커라커 헤어라인'을 운영하며 남다른 부부애를 과시하고 있다.

남편 오재영(48)씨는 부인 정명자(43)씨와 한 건물 내에 있는 신발업체와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자연스레 만나 사랑을 키워오다 결혼했다. 결혼 후 오재영씨는 1년 정도 신발업체를 운영하다가 정리하고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 아내와 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동안 싸울 일도 많았을 텐데 지금까지 말다툼 한번 하지 않고 부부 미용사로 같은 길을 걸어왔다. 그동안 1남1녀의 자녀들도 대학생과 고등학생으로 건강하게 키웠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이들 부부 사이에 작은 의견 차이를 보일 때가 많아졌다. 새로운 기계를 도입 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투자를 하자는 남편과 투자보다 안정을 원하는 아내와의 갈등이다. 또 새로운 미용기술에 대한 견해를 나누면서도 열띤 토론을 벌일 만큼 일에 대한 욕심은 서로가 대단하다.

하지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원앙과도 같은 부부애를 나누며 고단한 하루를 달랜다.

이들 부부의 소원은 크고 특별하지 않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경제 불황의 무서운 파고를 무사히 넘어 미용실을 손님의 구미에 맞게 꾸려 나가는 것이다.

김정희 기자